



미 증시, 전쟁 리스크 재부각, 차익실현 압력 등에 하락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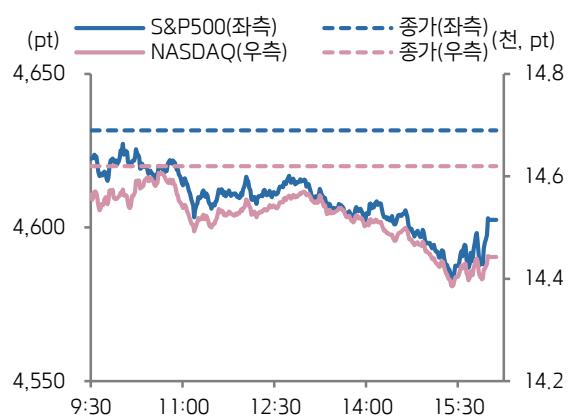
30 일 (수) 미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 불확실성 재부각, 장단기금리차 축소 논란 등이 차익실현 압력을 자극하며 하락 마감. 러시아는 전일 휴전 협상에 대한 진전을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재부각 되었고 최근 빠르게 상승한 기술주들에 대한 매물이 출회. 다만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등 방어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임. 이날 추가적인 부담 요인으로는 미국채 10-2 년물 금리차 축소(-2bp), 그리고 매파적인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있었음. S&P500 지수는 0.2% 하락 출발 이후 낙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저점: S&P500 -1.0%, 나스닥 -1.6%)(다우 -0.19%, S&P500 -0.63%, 나스닥 -1.21%, 러셀 2000 -1.97%).

업종 에너지(+1.2%), 유틸리티(+0.8%), 헬스케어(+0.2%) 등이 상승, 경기소비재(-1.5%), IT(-1.4%), 금융(-0.7%) 등이 하락. 에너지는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 재부각으로 상승한 유가에 상승, 산업재(-0.2%), 소재(-0.3%)은 각각 소폭 하락.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2% 급락.

3 월 ADP 민간 비농업 고용자는 45.5 만명(예상 45 만명, 전월 48.6 만명) 증가하며 컨센서스를 상회.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신속하게 통화정책을 중립 수준까지 움직여야 한다고 발언.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오전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5 월 FOMC 에서 50bp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 상태에 따라 달라 질것이라고 언급. 우크라이나 사태는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주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타격은 지금까지는 없어 보인다고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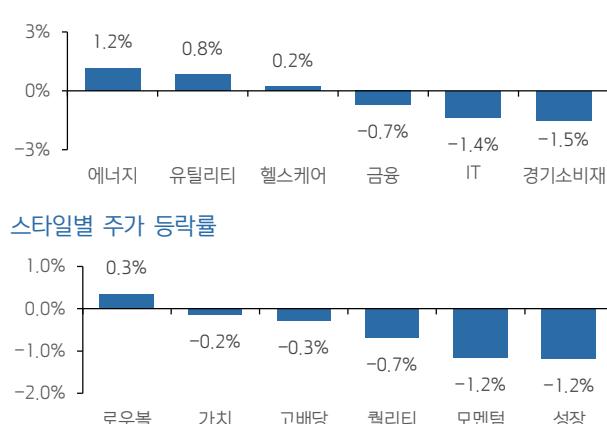
종목별로 애플(-0.7%), 테슬라(-0.5%) 등 대형 기술주들은 매물을 소화하며 소폭 약세 흐름을 보임. 전일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 테크놀러지(-3.5%)는 실적 및 가이던스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이날 반도체 주들의 차익실현 압력에 장외 +4%대 강세 반납. 실적을 발표한 쥬이(-16.1%), PVH(-6.5%)는 가이던스 부진에 급락했지만, 룰루레몬(+9.6%)은 어닝, 가이던스 서프라이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 발표에 급등. 최근 급등세를 보인 밍스탁들도 하락(AMC -12.8%, 게임스탑 -7.6%).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602.45	-0.63%	USD/KRW	1,209.74	-0.81%
NASDAQ	14,442.27	-1.21%	달러 지수	97.83	-0.59%
다우	35,228.81	-0.19%	EUR/USD	1.12	-0.01%
VIX	19.33	+2.28%	USD/CNH	6.36	+0.01%
러셀 2000	2,091.07	-1.97%	USD/JPY	121.87	+0.03%
필라. 반도체	3,508.62	-3.2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546.85	-1.03%	국고채 3년	2.620	-7.2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885	-6.5bp
Eurostoxx50	3,959.14	-1.08%	미국 국채 2년	2.306	-5.8bp
MSCI 전세계 지수	723.16	+1.54%	미국 국채 10년	2.349	-4.6bp
MSCI DM 지수	3,110.81	+1.61%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36.45	+1.03%	WTI	107.82	+3.43%
MSCI 한국 ETF	71.55	-1.31%	금	1939	+1.0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1%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8%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10.8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3% 대 약세가 국내 반도체 업종에 미치는 영향
2.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국내 인플레이션 관련 업종들의 주가 반등 가능성
3. 미국 장단기 금리차를 둘러싼 침체 논란이 만들어낼 수 있는 증시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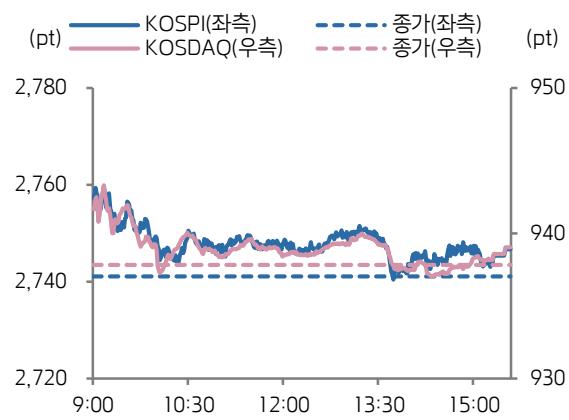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10년물-2년물, 30년물-10년물, 5년물-2년물 등 대부분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10년물-3개월물은 확대되는 등 침체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장단기 금리차를 놓고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반면, 연준에서는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에 잘못된 신호(미래에 대한 지나친 비관 전망이나 미래의 공격적 긴축 중단 기대 등)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0년물과 3개월물, 혹은 2년이하의 단기물 간 금리차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 또 지난 3월 FOMC에서 언급했듯이 고용과 소비 등 실물 지표가 견조한 만큼 긴축에 따른 경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해볼 필요.

그러나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연준의 현재 전망과 향후 예상되는 긴축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30일 CNBC의 서베이에서도 연준의 잘못된 결정(46%, Fed Misstep)이 인플레이션(33%), 러시아 침공(11%)를 제치고 연내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음. 과거 미국 경제의 패턴을 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없이 침체가 찾아온 적은 없었다는 점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 결국, 차주 공개되는 3월 FOMC 의사록, 혹은 연준 위원들의 연설을 통해 단기물 금리 급등세가 진정이 되거나, 4월 중순까지 발표되는 주요 실물 경제지표를 통해 경제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자신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장단기 금리차 축소 논란은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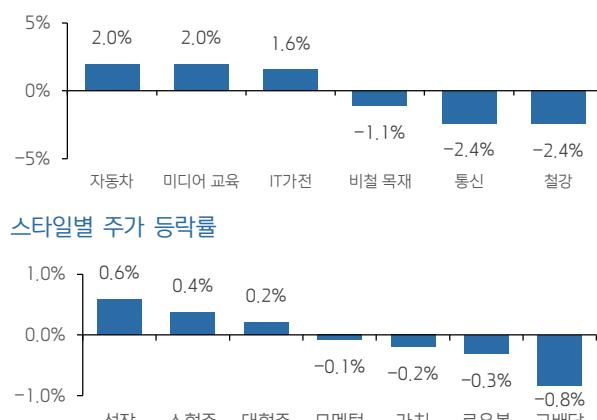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장단기금리차 축소 여파, 원자재 가격 반등에 따른 인플레 부담 등으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한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감은 높아지기도 했으나, 독일의 가스 잔량 부족(25% 수준)에 따른 가스 공급 비상사태 선포, 러시아가 수도 주변 지역 칠군한 것이 아닌 재배치라고 주장한 미국의 발언 등이 사태의 불확실성을 재차 키우는 모습. 물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추가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이며 정상회담도 개최할 의지는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태의 악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은 유효. 다만, 30일 당일에 한해 미국 증시에서도 인플레이션 수혜주(에너지, 곡물 등)와 피해주(소매, 반도체 등) 간 엇갈린 주가흐름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도 관련 업종들간 차별화된 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if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